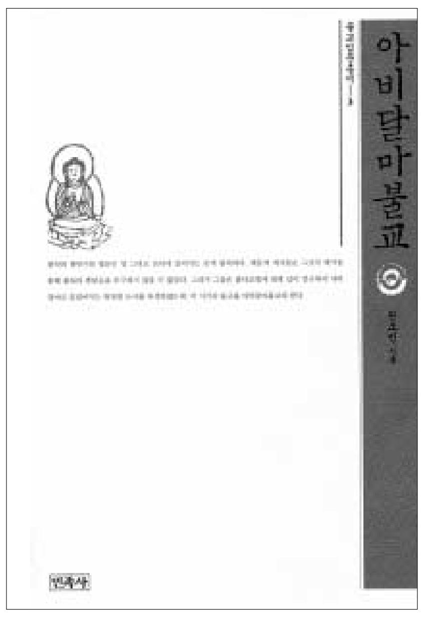
원시·대중불교 이해 필독서

'아비달마불교'

권오민 지음

민족사 / 9천원



구사론 바탕 부처님교법 알기 쉽게 저술
아비달마 본질·교리·용어 간결하게 정리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에서 열반에 드셨다. 남은 것은 오직 그의 말씀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문(聲聞)의 제자들로서는 스승이 남긴 교법을 결집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스승이 지나갔던 발자취를 따르는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들 성문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불타의 교법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겨난 경전이 바로 <아비달마 논장>이다.

권오민 교수(46·경상대 인문학부)가 펴낸 <아비달마불교>는 아비달마시대의 본질과 교리 및 불교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아비달마? 우선 책 제목부터 초심자들에게는 생소할 것 같다. 직역하면 불타가 설한 뛰어난 법을 의미한다. 불교의 역사는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불타입멸 후 1백년이 지날 무렵, 단일성을 유지해 오던 불교교단이 상좌부와 대중부로 근본분열하고, 다시 3차례에 걸쳐 분열을 거듭한 끝에 18~20개 부파로 나뉘어지는데 이 시기의 불교를 부파불교 즉 아비달마불교라 한다. 특히 아비달마불교는 형식적으로 소승불교의 범주에 해당된다.

권 교수는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아비달마불교는 논의를 위한 논의, 번쇄한 이론체계, 자신의 열반만을 추구하는 자리(自利)의 불교라는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비달마불교는 원시불교경전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에 성립한 직접적인 해석체계이므로 이것에 대한 이해는 원시불교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집필의도를 밝힌다. <아비달마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했던 8만4천의 법문을 온갖 언어적 개념으로 정리 해석하고 있다. 이른바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방대한 문헌들을 산출했으며, 그 정점이 바로 <아비달마구사론>이다. 그래서 '구사학(俱舍學)'은 전통적으로 불교학의 기초학문으로 인식돼 왔다. 이런 <구사론>을 바탕으로 저술된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은 '아비달마'의 본질이다. 아비달마의 본질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지만, 그것이 세간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언어적 개념으로 정리되고 해석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2장 '존재의 분석'에서는 언어적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계에 대해 밝힌다. 이를테면 분노라는 현상은 사실 자체로는 단일하지만 온갖 원인과 조건이 얽히고설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현상으로 이른바 '제법분별(諸法分別)'로 일컬어지는 존재의 분석을 통해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음을 일깨워 준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분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3장에서는 온갖 번뇌와 업에 의해 야기되는 '미혹에 대해', 4장에서는 존재실상에 대한 통찰에서 드러나는 열반 즉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특히 마지막장은 아비달마불교가 이론위주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필자의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다. 또 입문서 개념으로 기획된 것이어서 인지 온갖 개념과 용어를 가급적 줄이거나 쉽게 풀어쓰려 노력했던 흔적들이 책장을 쉽게 넘기게 해 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반야심경'

정성본 지음

한국선문화원 / 3천원

마음으로 읽는 반야심경

생활속에서 반야 지혜 터득하는 길 안내

<반야심경>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고 있는 경전이다. 조석 예불을 비롯해 불교 행사나 의식에서 빠지는 법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 불교 의식에서는 한문경전을 그대로 독송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반야심경>의 내용과 실천정신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법회의 식으로 외우고 독송하는 경우가 많다.

번뇌 망념을 텅 비우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지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외우는 <반야심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경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반야심경>을 수차례 강의하면서 요약한 교재를 토대로 약간의 설명을 첨가해 만든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의 <반야심경>은 단순한 불교 교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 넘어 생활속에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반야심경>의 원문과 번역문, 해설이 실려있다.

김주일 기자

스님이 들려주는 태교명상시

부모와 아기의 인연법 등 짤막한 글도 함께

'아기는 뱃속에서 엄마의 숨소리를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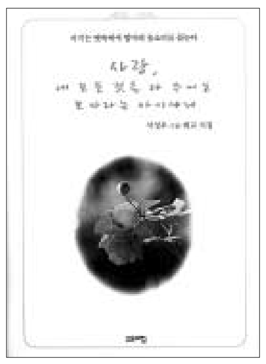
그동안 태교 교육관련 저서들을 펴내며 불교식 태교를 연구해 온 성우 스님(불교텔레비전 회장)이 태교명상시를 모은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는 아기에게>를 펴냈다. 성우 스님은 "이 세상에 중요한 일도 가치있는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어질고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에는 '수정보다/맑은 마음으로/기다려온인연//기다렸던/시간은/금싸라기 같은 행복이었네('서시' 중에서)'라는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시부터 '당신의 자비/아기 마음되게/당신의 원력/아기 뜻 되게//관세음보살/현신하소서('관세음보살5' 중에서)' 처럼 아이를 가진 엄마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시 등 태교 명상을 위한 64편의 시가 들어 있다. 또 시 옆에는 태교의 중요성, 부모와 아기의 인연법 등 짤막한 글도 덧붙여 놓았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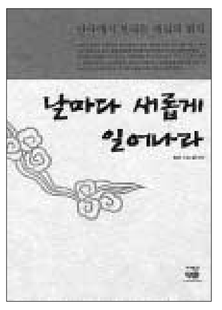
'사랑, 내 모든것을 다…'

석성우 지음

고요아침 / 6천5백원



새로나온 책



법상스님 명상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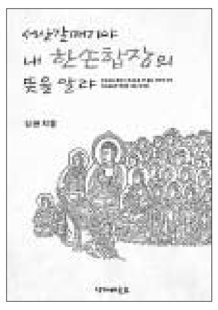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라'

법상스님 지음

무한 / 9천원

"오늘 정진하는 108배는 온전히 새로운 공부입니다. 이전부터 해 오던 수행으로 오늘의 정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경이롭고 새로운 순간中)

인터넷 홈페이지 '목탁소리(www.moktaksori.com)'를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법상 스님의 명상 에세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라>가 나왔다. 스님은 이 책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소박하면서도 소중한 깨침의 구절들을 선별해 묶었다. 스님이 전국을 여행하며 직접 찍은 사진들도 함께 담겨 있어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출가동기·구도여정 담아

'서산갈매기야 내 한손…'

성관 스님 지음

양지바른곳 / 1만원

수원 용화정사에서 중생 구제를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성관 스님. 스님이 출가하게 된 계기와 구도의 여정 등을 담담한 문체로 서술한 <서산갈매기야 내 한손합장의 뜻을 알라>가 나왔다. 어릴 적 우연한 사고로 한 손을 잃고 방황하던 성관 스님은 출가를 하지만 고통의 연속이었다. 스님은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 설악산에서 수행을 시작했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성관 스님은 "오랜 세월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밝고 맑은 새 세상으로 나오라"며 독자들에게 한손 합장을 한다.

'왕따' 극복과정 담은 동화

'내 짝꿍은 빡빡이'

박관희 글·그림

행복한세상 / 7천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왕따'라는 집단 따돌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 짝꿍은 빡빡이>는 어린이 동화지만, 왕따라는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함께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절에서 스님과 함께 산다고 친구들로부터 '중중 까까중'이라고 놀림받으며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 운회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과정이 동화형식으로 잔잔하게 펼쳐진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2	힘	틱낫한	명진출판사
3	절간이야기	오현스님	고요아침
4	미소짓는 발걸음	틱낫한	열림원
5	감산자전	대성 스님	여시아문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7	묻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민족사
8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재경	마당넓은집
9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스님	불광
	능엄주해의	전수태	운주사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건강해지는 비결과 부작용 없고 가장 효과적인 다이이트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 •• 청국장 먹고 효과 봤어요 •• 집에서 청국장 잘 만드는 법 •• 내가 만든 청국장 잘 보관하는 법 •• 청국장 생으로 맛있게 먹는 법 •• 청국장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 '청국장 다이어트'로 17kg을 감량한 김한복 교수의 다이어트 체험기 •• 김한복 교수의 날씬한 몸매 만들기 10계명

'청국장 열풍'의 주인공 김한복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분자생물학 박사 •1997~1998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미생물 및 면역학과 연구원 •1992년부터 호서대에 재직하며 이듬해 청국장 연구 시작 •2000년 1월 '청국장 먹기 운동' 홈페이지(http://chungkookjang.com) 개설 •현재 호서대학교 생물정보학과 교수

★교보문고 건강 베스트 2위 YES24 건강 베스트 5위 알라딘 건강 베스트 6위

•SBS TV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2003. 3. 1.)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 방영(2003. 3. 11.)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한 미생물학 박사 김한복 교수의
청국장 다이어트 & 건강법
김한복 지음 / 272쪽(올컬러) / 14,500원
Human & Books 전화·02-6327-3535 팩스·02-6327-5353 e-mail·hbooks@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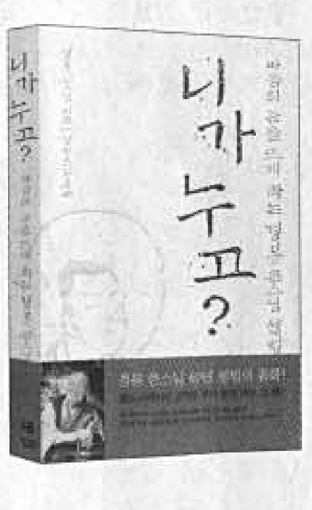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설법
니가 누고?
경봉 큰스님 지음 / 명정 스님 주해 / 442쪽 / 12,000원

성철스님도 우러러보았던 20세기 한국 불교의 거목!
-경봉 큰스님의 육성을 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보리라.
그리 하다가 죽으면 또 어떠리!"

• 여기 실린 60편의 법문은 돌과 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일러주고 있다. -조선일보

• 깨달음에 앞서 '참된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경봉 스님은 이해하기 쉬운 설법과 서정성 깊은 60편의 법문으로 중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한다. 하루 한 시간은 일상 속의 '참 나'를 마주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한다. -세계일보



★교보문고 불교분야 베스트 2위 국내 최대 불교서점 여시아문 베스트 3위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60년 설법의 총화!
통도사에서만 270만 부가 나간 바로 그 책!